

## 脈經卷第二 三關脈主病과 奇經八脈病證에 對한 研究 (II)

林東局 · 朴 炅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 [ Abstract ]

A study on the Main Diseases of Three Divisions of the Pulse and the Symptoms of Diseases of Gi Kyoung Pal Maek(奇經八脈) of the Maek Kyoung(脈經) Vol. II (II)

Dong Kook Lim, Kyung Park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Maek Kyoung(Mai Jing, 脈經) is the first chinese specialized book of diagnostics written by Wang Hee(Wang xi, 王熙) from Seo Jin(xi jin, 西晉). He assorted the contents with pulse and medical examination from Nae Kyoung(nei jing, 內經), Nan Kyoung(nan jing, 難經), Sang Han Ron(shang han lun, 傷寒論) and Jung Jang Kyoung(zhong cang jing, 中藏經). And united with his own research, he explains medical examination and the way of talking the pulse by classifying into entrance and class.

Maek Kyoung(Mai Jing, 脈經) was imported Korea by Ji Chong(zhi cong, 知聰) AD 561, and he passed through Ko Ku Ryeo(gao gou li, 高句麗) with Nae Wei Jeon(nei wai dian, 內外典), Yak Seo(yao shu, 藥書), Myung Dang Do(ming tang tu, 明堂圖) and Maek Kyoung(Mai Jing, 脈經) to be naturalized in Japan.

This treatise make a special study of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It consists of the four chapters : Pyoung Sam Kwan Eum Yang E Sip Sa Ki Maek Je II(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 Pyoung In Young Sin Mun Ki Ku Jeon Hu Maek Je E(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Pyoung Sam Kwan Byoung Hu Byoung Chi Eui Je Sam(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and Pyoung Gi Kyoung Pal Maek Byoung Je Sa(平奇經八脈病第四).

Bi Geup Choun Geum Yo Bang(備急千金要方) and Eui Hak Ip Mun(醫學入門) quoted from the contents in the second volume of Maek Kyoung, and Bin Ho Maek Hak(瀕湖脈學), Gi Kyoung Pal Maek Go(奇經八脈攷) and Maek Eo(脈語) extracted from contents in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and requested from this contents.

Contents in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have very valuable data like that, but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in the form of a treatise has not been yet in Korea. So I hope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develop Diagnostics by correc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fixing wrong translation.

Key Words: the second volume of the Maek Kyoung, Gi Kyoung Pal Maek

\* 교신저자 : 임동국 / 소속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77-1 임동국한의원

Tel : 031-222-7331 / E-mail : honey-ice@hanmail.net

본 논문은 분량관계로 인하여 (I)편을 10-2권, (II)편을 11-1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三關의 각종 脈象에 따른 病候와  
適宜한 治則의 分辨)

第 1 章 上部寸口の 脈證治 十七條

【原文】

寸口脉이 浮<sup>(1)</sup>하면 中風<sup>(2)</sup>으로 發熱하고 頭痛하  
니 宜服桂枝湯<sup>(3)</sup> 葛根湯<sup>(4)</sup>이요 針風池<sup>(5)</sup> 風府<sup>(6)</sup>하  
고 向火灸身<sup>1)</sup>하며 摩<sup>(7)</sup>治風膏<sup>(8)</sup>하고 覆<sup>(9)</sup>令汗出이  
라

寸口脉이 緊<sup>(10)</sup>하면 苦頭痛骨肉疼<sup>2)</sup>하니 是傷寒  
<sup>(11)</sup>이라 宜服麻黃湯<sup>(12)</sup>하야 發汗이요 針眉衝<sup>(13)</sup> 顛  
顛<sup>(14)</sup>하고 摩治傷寒膏<sup>(15)</sup>라

寸口脉이 微<sup>(16)</sup>하면 苦寒하고 爲衄하니 宜服五  
味子湯<sup>(17)</sup>하고 摩茱萸膏<sup>(18)</sup>하야 令汗出이라

【校 勘】

1) 向火灸身; 『錢本』·『周本』과 『千金』 卷二十八  
「三關主對法第六·平寸口脈主對法」에는 모두  
‘向火灸身’으로 되어 있다.

2) 苦頭痛骨肉疼; 『千金』에는 ‘苦頭痛’으로 되어  
있고, 『周本』과 『校釋』에는 ‘苦頭痛骨肉痛’으로  
되어 있다.

3) 摩治傷寒膏; 『千金』에는 ‘摩傷寒膏’로 되어  
있다.

4) 摩茱萸膏; 『千金』에는 ‘麻茱萸膏’로 되어  
있다.

【註 釋】

(1) 浮(부); 浮脈. 浮脈은 가볍게 누르면 脈狀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減少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狀이다.<sup>1)</sup>

(2) 中風(중풍); 『傷寒論』의 太陽中風으로 太陽  
經이 風邪에 感觸된 것을 말하며 太陽表證의 하  
나이다. 主要症狀은 頭項強痛, 惡風, 發熱, 汗出,  
脈浮緩 등이며 表虛證에 속한다.

(3) 桂枝湯(계지탕); 太陽中風의 頭痛發熱·汗  
出惡風·鼻鳴乾嘔·脈浮緩을 치료하는 方劑로 桂  
枝·芍藥·生薑 各三兩, 炙甘草 二兩, 大棗 二十枚  
를 잘게 썰어 물에 다려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4) 葛根湯(갈근탕); 風寒感冒로 無汗·惡寒·  
發熱·頭痛·項背強几几하는 것을 치료하는 方劑  
로 葛根 四兩, 麻黃·生薑 各三兩, 桂枝·炙甘  
草·芍藥 各二兩, 大棗 十二枚를 잘게 썰어 물에  
다려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5) 風池(풍지); 足少陽膽經의 穴로, 外後頭隆  
起 아래의 ham물부와 乳樣突起 사이에 있다.

(6) 風府(풍부); 督脈의 穴로, 項部 정중선 後髮  
際에서 위로 1寸 가량 들어간 곳에 있다.

(7) 摩(마); 옛 外治法의 하나로 按摩에 해당된  
다.<sup>2)</sup>

1)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  
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8

2) “摩”, 古外治法之一. 作按摩解.”

(8) 風膏(풍고) ; 未詳

(9) 覆 ; 蓋也, 덮을 부

(10) 緊(긴) ; 緊脈. 緊脈의 體狀은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關係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것이다.<sup>3)</sup>

(11) 傷寒(상한) ; 太陽表證 증의 實證으로 主要 症狀은 發熱, 惡寒, 無汗, 頭項強痛, 體痛嘔逆, 脈浮緊 등이다.

(12) 麻黃湯(마황탕) ; 太陽傷寒의 頭痛發熱·身疼骨節疼痛·惡風·惡寒而喘·脈浮緊을 치료하는 方劑로 麻黃 三兩, 桂枝 二兩, 炙甘草 一兩, 杏仁 七十個를 잘게 썰어 물에 다려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13) 眉衝(미충) ; 足太陽膀胱經의 穴로, 눈썹의 안쪽 끝부분에서 直上하여 髮際로부터 5分 올라간 穴에 있다.

(14) 顛顛(섬유) ; 腦空穴. 足少陽膽經의 穴로, 風池穴에서 곧바로 1寸5分 올라간 穴에 있다.

(15) 傷寒膏 ; 未詳

(16) 微(미) ; 微脈. 매우 細하면서 柔軟한 것이 浮沈에 다르지 않은 脈狀이다.<sup>4)</sup>

(17) 五味子湯 ; 未詳

(18) 茱萸膏 ; 未詳

【國譯】

寸口脈이 浮하면 中風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니 桂枝湯이나 葛根湯을 服用한다. 風池와 風府穴에 刺鍼한 뒤 불가로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며, 風膏로 문질러 治療한 뒤 이불을 덮어 땀이

나게 한다.

寸口脈이 緊하면 頭痛과 骨肉痛으로 괴로워하니 이는 傷寒證이다. 麻黃湯을 服用하여 發汗시키고, 眉衝과 顛顛에 刺鍼한 뒤 傷寒膏로 문질러 治療한다.

寸口脈이 微하면 추위로 괴로워하고 코피가 나게 되니, 五味子湯을 服用하고 茱萸膏로 문질러 땀이 나게 한다.

【原文】

寸口脈이 數<sup>(1)</sup>하면 卽爲吐니 以有熱在胃管<sup>(1)(2)</sup>하여 熏<sup>(3)</sup>胸中이라 宜服藥하야 吐之하고 及針胃管<sup>(1)(2)</sup>하고 服除熱湯<sup>(4)</sup>이라 若是傷寒<sup>(2)</sup>七八日至十日에 熱在中하야 煩滿渴者는 宜服知母湯<sup>(5)</sup>이라

寸口脈이 緩<sup>(6)</sup>하면 皮膚不仁<sup>(7)</sup>하니 風寒이 在肌肉이라 宜服防風湯<sup>(8)</sup>하고 以藥薄熨<sup>(9)</sup>之<sup>(3)</sup>하며 摩以風膏<sup>(4)</sup>하고 灸諸治風穴이라

寸口脈이 滑<sup>(10)</sup>하면 陽實하야 胸中壅滿하고 吐逆하니 宜服前胡湯<sup>(11)</sup>이요 針太陽<sup>(12)</sup> 巨闕<sup>(13)</sup>호래 瀉之라

【校勘】

1) 胃管 ; 『千金』과 『校釋』에는 ‘胃脘’으로 되어 있다. 이하 동일하다.

2) 若是傷寒 ; 『千金』에는 ‘若傷寒’으로 되어 있다.

3) 以藥薄熨之 ; 『千金』에는 ‘以藥薄熨之佳’로 되어 있다.

4) 摩以風膏 ; 『千金』에는 없다.

【註釋】

(1) 數(삭) ; 數脈. 數脈은 正常的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맥이 6회 이상 搏動하는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72

3)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9

4) 上揭書; p.100

脈이다.5)

(2) 胃管(위관) ; 任脈의 中脘穴로, 배꼽에서 위로 4寸되는 곳에 있다.

(3) 熏 ; 火煙上出, 불길 오를 훈

(4) 除熱湯(제열탕) ; 未詳

(5) 知母湯(지모탕) ; 未詳

(6) 緩(완) ; 緩脈. 健康인의 正常的인 緩脈은 1呼吸에 4번 搏動하고, 浮中沈에 걸쳐 부드럽게 搏動하는 脈狀이고, 病的인 緩脈은 늘어지고 輕快하게 搏動하는 脈狀이다.6)

(7) 皮膚不仁(피부불인) ; 皮膚의 감각 기능이 둔해지거나 상실된 증상.

(8) 防風湯(방풍탕) ; 未詳

(9) 熨(울) ; 외치법의 하나. 가루약이나 필요한 약재를 거칠게 가루낸 것을 뜨겁게 볶아 천에 싸서 찜질하는 방법이다. \* 熨 ; 火斗, 다림질 할 울

(10) 滑(활) ; 滑脈은 꿰어 놓은 구슬을 가볍게 잡고 빠르게 뽑아 낼 때처럼 동글동글하고 매끄럽게 손가락에 感應되는 脈狀이다.7)

(11) 前胡湯(전호탕) ; 未詳

(12) 太陽(태양) ; 經外奇穴의 하나로, 눈썹꼬리와 外眼角의 사이에서 뒤쪽으로 약 1寸부위에 있다.

(13) 巨闕(거궐) ; 任脈의 穴로, 鳩尾 아래 一寸되는 곳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

### 【國譯】

寸口脈이 數하면 바로 吐하는데 中脘에 熱이 있어서 胸中을 혼중하기 때문이다. 藥을 먹어서 吐하게 해야 하고 이어서 中脘에 刺鍼하고 除熱湯을 服用한다. 만약 傷寒에 걸린 지 7·8일에서 10일 정도에 熱氣가 胃속에 있어서 煩滿하고 渴

症이 있는 사람은 知母湯을 服用한다.

寸口脈이 緩하면 皮膚가 不仁하니 風寒邪가 肌肉에 있기 때문이다. 防風湯을 服用하고, 藥을 얇게 하여 熨해 주며 風膏로 문지르고 風을 치료하는 모든 穴에 뜸을 뜬다.

寸口脈이 滑하면 陽邪가 實한 것으로 胸中이 막혀서 그득하고 吐逆하니 前胡湯을 服用하고, 太陽과 巨厥穴을 刺鍼하되 瀉한다.

### 【考察】

數脈의 경우 寸·關·尺이 모두 一息 六至하는데 ‘寸口脈數’ ‘關脈數’ ‘尺脈數’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醫學入門·諸脈相兼主病』에서 遲脈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맥을 찾아보아 힘이 없어야만 참으로 본래의 遲脈인 것이다(必尋之無力, 乃爲眞遲).”라고 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入門』의 註釋은 寸·關·尺이 모두 一息 三至의 遲脈으로 박동하나 寸部나 關部, 尺部만이 무력할 때 진짜 遲脈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數衍解釋해 보면 數脈의 경우는 寸部나 關部, 尺部에서 “반드시 맥을 찾아보아 힘이 있어야만 참으로 본래의 數脈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原文】

寸口脈이 絃<sup>(1)</sup>하면 心下幅幅<sup>(2)</sup>하고 微頭痛하니 心下에 有水氣<sup>(3)</sup>라 宜服甘遂圓<sup>(4)</sup>하고 針期門<sup>(5)</sup>호대 瀉之라

寸口脈이 弱<sup>(6)</sup>하면 陽氣虛<sup>(2)</sup>하여 自汗<sup>(7)</sup>出而短氣<sup>(8)(3)</sup>하니 宜服茯苓湯<sup>(9)</sup> 內補散<sup>(10)</sup>하며 適<sup>(11)</sup>飲食消息<sup>(12)(4)</sup>하고 勿極勞요 針胃管호대 補之라

寸口脈이 澀<sup>(13)</sup>하면 是胃氣不足이니 宜服乾地黃湯<sup>(14)</sup>하고 自養하며 調和飲食하고 針三里<sup>(15)(5)</sup>호대 補之라 三里를 一作胃管이라

5) 上揭書; pp.98~99

6) 上揭書; p.101

7) 上揭書; p.98

【校 勘】

- 1) 甘遂圓 ; 『錢本』·『周本』 및 『千金』 卷二十八 「第六」에는 '甘遂丸'으로 되어 있다.
- 2) 陽氣虛 ; 『千金』에는 '陽氣虛弱'으로 되어 있고, 『校釋』에는 '陽虛'로 되어 있다.
- 3) 自汗出而短氣 ; 『千金』에는 '自汗出'로 되어 있다.
- 4) 適飲食消息 ; 『千金』에는 '將適飲食消息'으로 되어 있다.
- 5) 針三里 ; 『千金』에는 '針胃管'으로 되어 있다.

【註 釋】

- (1) 絃(현) ; 弦脈. 弦脈은 그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것이다.<sup>8)</sup>
- (2) 幅幅(뽀뽀) ; 가슴이 답답한 모양. \* 幅 ; 鬱也, 답답할 뽀
- (3) 心下水氣(심하유수기) ; 心下水氣. 脾胃의 陽이 損傷되고 運化機能이 저하되어 水飲이 中焦에 정체되므로 胃脘部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차오르는 느낌이 발생하는 증상이다.
- (4) 甘遂圓(감수원) ; 未詳
- (5) 期門(기문) ; 足厥陰肝經의 穴로, 乳頭 바로 아래의 肋骨端에 있다.
- (6) 弱(약) ; 弱脈. 弱脈은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狀이라 할 수 있다.<sup>9)</sup>
- (7) 自汗(자한) ; 낮에 勞動을 하거나 두터운 옷을 입거나 기운이 높지 않는데 땀이 저절로 나는 병증.
- (8) 短氣(단기) ; 呼吸이 빠르고 出入하는 氣가

急迫하여 吸氣와 呼氣가 서로 이어지지 않아 喘息과 비슷하나 어깨를 들먹이지 않고 호흡에 걸림과 痰이 끓는 소리가 없는 증상.

- (9) 茯苓湯(복령탕) ; 未詳
- (10) 內補散(내보산) ; 未詳
- (11) 適 ; 適合, 적합할 적
- (12) 消息(소식) ;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 (13) 澀(삽) ; 澀脈. 澀脈은 遲細하면서 短하여 往來하는 것이 갈끄럽고 둔하여 매우 流暢하지 못한 脈狀이다.<sup>10)</sup>
- (14) 乾地黃湯(건지황탕) ; 未詳
- (15) 三里(삼리) ; 足陽明胃經의 穴로, 小腿의 前外側에 있는데 犢鼻穴에서 3寸 直下한 곳이며 脛骨의 外側으로부터 1橫指 부위이다.

【國 譯】

寸口脈이 弦하면 心下에 답답하고 약간의 頭痛이 있으니 心下에 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甘遂圓을 服用하고 期門을 刺鍼하되 瀉한다.

寸口脈이 弱하면 陽氣가 虛하여 自汗이 나고 短氣가 발생하니 茯苓湯이나 內補散을 服用하며 음식의 양을 적당히 하여 조절하고 과로는 하지 않아야 하며, 中脘을 刺鍼하되 補한다.

寸口脈이 澀하면 이것은 胃氣가 不足한 것이니 乾地黃湯을 服用하며 환자 자신이 안정을 취하여 조리하고 飲食을 조절하며, 足三里를 足三里를 어떤 本에는 胃管이라고 하였다. 刺鍼하되 補한다.

【原 文】

寸口脉이 芤<sup>(1)</sup>하면 吐血<sup>(2)</sup>이요 微芤者는 衄血<sup>(3)</sup>이니 空虛는 去血故也라 宜服竹皮湯<sup>(4)</sup> 黃土湯<sup>(5)</sup>

8) 上掲書; p.99  
9) 上掲書; p.101

10) 上掲書; p.100

하고 灸臚中<sup>(6)</sup>이라

寸口脉이 伏<sup>(7)</sup>하면 胸中逆氣하야 噎塞<sup>(8)</sup>不通하니 是는 胃中冷氣가 上衝心胸이라<sup>3)</sup> 宜服前胡湯 大三建圓<sup>2)(9)</sup>하고 針巨關 上管<sup>(10)</sup>하며 灸臚中<sup>4)</sup>이라 寸口脉이 沈<sup>(11)</sup>하면 胸中引脅痛하니 胸中에 有水氣라 宜服澤漆湯<sup>(12)</sup>하고 針巨關호대 瀉之라

【校 勘】

- 1) 黃土湯 ; 『黃本』과 『周本』에는 모두 ‘黃耆湯’으로 되어 있다.
- 2) 大三建圓 ; 『校釋』에는 ‘大三連丸’으로 되어 있다.
- 3) 是胃中冷氣上衝心胸 ; 『千金』에는 ‘是諸氣上衝胸中’으로 되어 있다.
- 4) 針巨關上管 灸臚中 ; 『千金』에는 ‘針巨關 瀉之’로 되어 있다.

【註 釋】

- (1) 扞(干) ; 扞脈. 脈은 浮大하면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 杵 杵를 누르는 것과 같은 脈狀으로 脈位는 浮하고 形象은 大하고, 氣勢는 柔軟하며,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sup>11)</sup>
- (2) 吐血(토혈) ; 口로 피를 토하지만 뚜렷한 嘔惡 및 咳嗽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口로 피를 토하는 경우를 통틀어 吐血이라고 한다.
- (3) 衄血(육혈) ; 코피
- (4) 竹皮湯(죽피탕) ; 未詳
- (5) 黃土湯(황토탕) ; 未詳
- (6) 臚中(단중) ; 任脈의 穴로, 兩 乳頭間의 陷中에 있다. \* 臚 ; 兩乳頭間, 가슴 단

11) 上揭書; p.98

(7) 伏(복) ; 伏脈. 伏은 처음 가볍게 눌렀을 때 나타나지 않고, 다음으로 中部에서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며, 다시 매우 무겁게 눌러도 그 形象이 없고, 손가락으로 筋을 밖으로 밀어내고 診脈하여야 나타난다.<sup>12)</sup>

- (8) 噎塞(열색) ; 梗塞. 막다. \* 噎 ; 飯室喉閉, 목 멎 열
- (9) 大三建圓(대삼건원) ; 未詳
- (10) 上管(상관) ; 上腕穴의 別名.<sup>13)</sup> 任脈의 穴로, 배꼽 위 5寸部에 있다.

(11) 沈(침) ; 沈脈. 沈脈은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感應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狀이다.<sup>14)</sup>

(12) 澤漆湯(택칠탕) ; 『金匱要略』의 處方으로, 咳逆上氣·脈沈을 치료하며, 處方構成은 澤漆 三斤(先煎取汁), 半夏 五升, 紫蔘(一作紫苑) 五兩, 生薑·白前 五兩, 甘草·黃芩·人蔘·桂枝 各三兩이다.

【國 譯】

寸口脈이 扞하면 吐血하고 微扞하면 衄血이 나오니 扞脈으로 空虛한 것은 血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竹皮湯이나 黃土湯을 服用하고 臚中에 뜸을 뜬다.

寸口脈이 伏하면 胸中の 氣가 거슬러 막혀 통하지 않으니 이는 胃中の 冷氣가 心胸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前胡湯이나 大三建圓을 服用하고 巨關과 上腕穴에 刺鍼하며 臚中에 뜸을 뜬다.

12) 上揭書; p.99  
 13) “‘上管’, 上腕穴之別名.”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73  
 14)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8

寸口脈이 沈하면 胸中에서 脇까지 땅기면서 아프니, 胸中에 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澤漆湯을 服用하고 巨闕穴을 刺鍼하되 瀉한다.

【原文】

寸口脈이 濡<sup>(1)</sup>하면 陽氣弱<sup>(1)</sup>하여 自汗出하니 是 虛損<sup>(2)</sup>病이라 宜服乾地黃湯 署預圓<sup>(2)(3)</sup>하고 內補散과 牡蠣散<sup>(4)</sup>은 并粉이요 針太衝<sup>(5)</sup>호대 補之라

寸口脈이 遲<sup>(6)</sup>하면 上焦에 有寒하여 心痛咽酸<sup>(7)</sup>하고 吐酸水라 宜服附子湯<sup>(8)</sup> 生薑湯<sup>(9)</sup> 茱萸圓<sup>(3)(10)</sup>하고 調和飲食하여 以煖之라

寸口脈이 實<sup>(11)</sup>하면 卽生熱이 在脾肺하여 嘔逆氣塞이요 虛<sup>(12)</sup>하면 卽生寒이 在脾胃하여 食不消化라 有熱<sup>(3)</sup>에 卽宜服竹葉湯<sup>(13)</sup> 葛根湯이요 有寒에 宜服茱萸圓<sup>(4)</sup> 生薑湯이라

【校勘】

- 1) 寸口脈濡 陽氣弱 ; 『千金』에는 ‘寸口脈軟弱’으로 되어 있다.
- 2) 署預圓 ; 『校釋』에는 ‘薯蕷丸’으로 되어 있다.
- 3) 有熱 ; 『千金』에는 ‘熱’로 되어 있다.
- 4) 有寒宜服茱萸圓 ; 『千金』에는 ‘寒卽茱萸丸’으로 되어 있다. ‘茱萸圓’은 『校釋』에는 ‘茱萸丸’으로 되어 있고, 『廣本』에는 없다.

【註釋】

- (1) 濡(유) ; 濡脈(軟脈). 濡脈은 浮하면서 가늘고 柔軟한 脈狀이다.<sup>15)</sup>
- (2) 虛損(허손) ; 七情 · 勞倦 · 飲食 · 酒色에 손상되거나, 혹은 病을 앓은 후에 조리를 잘못하여

陰陽 · 氣血 · 臟腑가 虛해짐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증상은 복잡하지만 주로 氣虛 · 血虛 · 陽虛 · 陰虛로 나누어진다.

(3) 署預圓(서여원) ; 『金匱要略』의 薯蕷丸으로, 虛損으로 頭目眩暈 · 心中煩鬱 · 身重少氣 · 羸瘦納減 · 骨節腰背煩疼한 것과 風氣諸病을 치료한다. 薯蕷 二十分, 當歸 · 桂枝 · 神麩 · 乾地黃 · 大豆黃卷 各十分, 甘草 二十八分, 人參 · 阿膠 各七分, 芍藥 · 芍藥 · 白朮 · 麥門冬 · 防風 · 杏仁 各六分, 柴胡 · 桔梗 · 茯苓 各五分, 乾薑三分, 白薇二分, 大棗(爲膏) 一百枚를 가루로 만들어 煉蜜로 彈子大로 丸을 만들고, 한번에 한 丸씩 空腹에 술로 먹는다.

- (4) 牡蠣散(모려산) ; 未詳
- (5) 太衝(태충) ; 足厥陰肝經의 穴로, 足1趾의 外側 本節의 뒤쪽으로 5分 부위에 있다.
- (6) 遲(지) ; 遲脈. 遲脈은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3번 搏動하는 脈象이다.<sup>16)</sup>
- (7) 咽酸(인산) ; 咽喉酸痛.
- (8) 附子湯(부자탕) ; 『傷寒論』의 處方으로, 少陰病으로 身體骨節疼痛 · 手足寒 · 口中和 · 背惡寒 · 脈沈한 것을 치료한다. 炮附子 二枚, 茯苓 · 芍藥 各三兩, 人參 二兩, 白朮 四兩을 물에 다려 찌꺼기를 버리고 하루에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 (9) 生薑湯(생강탕) ; 未詳
- (10) 茱萸圓(수유원) ; 未詳
- (11) 實(실) ; 實脈. 實脈은 浮中沈候에서 손가락을 들거나 누르거나 모두 힘이 있는 脈狀이다.<sup>17)</sup>
- (12) 虛(허) ; 虛脈. 虛脈은 柔軟하고 힘이 없으면서 形體가 大한 脈象이다.<sup>18)</sup>
- (13) 竹葉湯(죽엽탕) ; 未詳

15) 上揭書; pp. 100~101

16) 上揭書; p.101  
17) 上揭書; p.100  
18) 上揭書; p.101

## 【國 譯】

寸口脈이 濡하면 陽氣가 弱하여 自汗이 나오니 이는 虛損病이다. 乾地黃湯이나 薯蕷圓을 복용하고 內補散과 牡蠣散은 모두 散劑로 만든다. 太衝을 刺鍼하되 補한다.

寸口脈이 遲하면 上焦에 寒邪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咽喉가 酸痛하며 신물을 吐한다. 附子湯이나 生薑湯이나 茱萸圓을 服用하고 飲食을 조절하여 上焦를 따뜻하게 한다.

寸口脈이 實하면 발생한 熱이 脾肺에 있어서 嘔逆하고 氣塞하며, 虛하면 발생한 寒이 脾胃에 있어서 음식물이 消化가 안 된다. 熱이 있으면 竹葉湯이나 葛根湯을 服用하고, 寒이 있으면 茱萸圓이나 生薑湯을 服用한다.

## 【原 文】

寸口脉이 細<sup>(1)</sup>하면 發熱하고 吸吐<sup>(1)</sup>하니 宜服黃芩龍膽湯<sup>(2)</sup>이요 吐不止면 宜服橘皮桔梗湯<sup>(3)</sup>이요 灸中府<sup>(4)</sup>라

寸口脉이 洪<sup>(5)</sup>대하면 胸脇滿하니 宜服生薑湯白薇圓<sup>(6)</sup>이요 亦可紫苑湯<sup>(7)</sup>으로 下之요 針上管<sup>(4)</sup>期門 章門<sup>(8)</sup>이라

右는 上部寸口の 十七條라

## 【校 勘】

1) 吸吐 ; 『廣本』·『黃本』·『錢本』·『千金』에는 모두 '嘔吐'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따른다.

2) 白薇圓 ; 『校釋』에는 '白薇丸'으로 되어 있다.

3) 亦可紫苑湯下之 ; 『繆本』에는 '亦可紫蘇湯下之'로 되어 있다.

4) 針上管 ; 『千金』에는 '針上腕'으로 되어 있다.

## 【註 釋】

(1) 細(세) ; 細脈. 細脈은 脈이 가늘기가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感應되는 것이 분명한 脈狀이다.<sup>19)</sup>

(2) 黃芩龍膽湯(황금용담탕) ; 未詳

(3) 橘皮桔梗湯(귤피길경탕) ; 未詳

(4) 中府(중부) ; 手太陰肺經의 穴로, 雲門穴下 肋骨 한 개 아래부위로써, 乳房 위의 脈이 搏動하는 곳의 陷中에 있다.

(5) 洪(홍) ; 洪脈. 洪脈은 매우 大하고 形狀이 파도가 세차게 위로 치솟는 것 같아 脈氣가 오는 것은 세차고 힘이 있으나 脈氣가 가는 것은 弱한 脈狀이다.<sup>20)</sup>

(4) 白薇圓(백미원) ; 未詳

(5) 紫苑湯(자원탕) ; 未詳

(6) 章門(장문) ; 足厥陰肝經의 穴로, 季肋의 下端에 있다.

## 【國 譯】

寸口脈이 細하면 열이 나고 嘔吐하니 黃芩龍膽湯을 服用하며, 嘔吐가 그치지 않으면 橘皮桔梗湯을 服用하고 中府穴에 뜸을 뜬다.

寸口脈이 洪大하면 胸脇이 그득하니 生薑湯이나 白薇圓을 服用하고 紫苑湯을 服用하여 下氣시킬 수도 있다. 上腕과 期門, 章門穴에 刺鍼한다.

以上은 上部寸口の 脈證治 十七條이다.

19) 上揭書; p.100

20) 上揭書; p.98



## 第 2 章 中部關脈의 脈證治 十八條

### 【原文】

關脈이 浮하면 腹滿不欲食하니 浮는 爲虛滿<sup>(1)</sup>이라 宜服平胃圓<sup>(1)(2)</sup> 茯苓湯 生薑前胡湯<sup>(3)</sup>이요 針胃管호대 先瀉後補之라

關脈이 緊하면 心下苦滿急痛하니 脈緊者는 爲實이라 宜服茱萸當歸湯<sup>(4)</sup>하고 又大黃湯<sup>(5)</sup>으로 兩治之면 良<sup>(2)</sup>이라 針巨關과 下管<sup>(6)</sup>호대 瀉之라 千金에 云 服茱萸當歸湯에 又加大黃二兩하면 佳라하니라

關脈이 微하면 胃中冷하야 心下拘急이라 宜服附子湯 生薑湯 附子圓<sup>(3)(7)</sup>이요 針巨關호대 補之라

### 【校勘】

1) 平胃圓 ; 『校釋』에는 '平胃丸'으로 되어 있다. 이하 동일하다.

2) 心下苦滿急痛 脈緊者爲實 宜服茱萸當歸湯 又大黃湯 兩治之良 ; 『千金』에는 '心下苦滿痛脈緊爲實 宜服茱萸當歸湯 又加大黃二兩佳'로 되어 있다.

3) 附子圓 ; 『校釋』에는 '附子丸'으로 되어 있다.

### 【註釋】

(1) 虛滿(허만) ; 痞滿의 하나. 가슴과 배가 그득한 감이 있는 증상으로 脾胃의 허약이나 腎陽虛로 생긴다.

(2) 平胃圓(평위원) ; 未詳

(3) 生薑前胡湯(생강전호탕) ; 未詳

(4) 茱萸當歸湯(수유당귀탕) ; 未詳

(5) 大黃湯(대황탕) ; 未詳

(6) 下管(하관) ; 下腕穴의 別名. 任脈의 穴로, 臍上 二寸되는 부위에 있다.

(7) 附子圓(부자원) ; 未詳

### 【國譯】

關脈이 浮하면 배가 그득하여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으니 浮한 것은 虛滿이기 때문이다. 平胃圓이나 茯苓湯, 生薑前胡湯을 服用하고, 中腕에 刺鍼하되 먼저 瀉한 후에 補한다.

關脈이 緊하면 心下가 그득하고 괴로우며 당기고 아프니, 脈이 緊한 것은 實하기 때문이다. 茱萸當歸湯을 복용하고 이어서 또 大黃湯을 服用하여 두 가지로 치료하면 더욱 좋다. 巨厥과 下腕을 刺鍼하되 瀉한다. 『千金』에는 茱萸當歸湯에 大黃 2냥을 가하여 복용하면 좋다고 하였다.

關脈이 微하면 胃中이 冷하여 心下가 당긴다. 附子湯이나 生薑湯, 附子圓을 服用하고, 巨厥을 刺鍼하되 補한다.

### 【原文】

關脈이 數하면 胃中에 有客<sup>(1)</sup>熱이라 宜服知母圓<sup>(1)(2)</sup> 除熱湯이요 針巨關과 上管호대 瀉之라

關脈이 緩하면 其人<sup>(2)</sup>이 不欲食하니 此는 胃氣不調하고 脾氣不足<sup>(3)</sup>이라 宜服平胃圓 補脾湯<sup>(3)(4)</sup>이요 針章門<sup>(5)</sup>호대 補之라

關脈이 滑하면 胃中에 有熱이니 滑은 爲熱實하야 以氣滿故<sup>(6)</sup>로 不欲食하고 食即吐逆이라 宜服紫菀湯하야 下之커나 大平胃圓<sup>(4)(7)</sup>이요 針胃管호대 瀉之라 千金에 云 宜服朴消麻黃湯 平胃圓이라하니라

### 【校勘】

1) 知母圓 ; 『千金』에는 '知母湯'으로 되어 있고 『校釋』에는 '知母丸'으로 되어 있다.

2) 其人 ; 『千金』에는 없다.

3) 此胃氣不調 脾氣不足 ; 『千金』에는 ‘此脾胃氣不足’으로 되어 있다.

4) 補脾湯 ; 『膠本』·『錢本』·『黃本』·『周本』·『張本』은 모두 ‘補肺湯’으로 되어 있다.

5) 針章門 ; 『千金』에는 ‘又針章門’으로 되어 있다.

6) 滑爲熱實 以氣滿故 ; 『千金』에는 ‘滑爲熱實氣滿故’로 되어 있다.

7) 宜服紫菀湯下之 大平胃圓 ; 『千金』에는 ‘宜服朴硝麻黃湯 平胃丸’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에 ‘一作宜服紫菀湯 人參大平胃丸’이란 小字註가 있다.

### 【註釋】

(1) 客(객) ; 邪氣가 내부로 침습한 것이 손님(客)과 같다는 뜻이다. 원래의 元氣는 主人과 같고 외부에서 온 邪氣는 손님과 같다.

(2) 知母圓(지모원) ; 未詳

(3) 補脾湯(보비탕) ; 未詳

(4) 大平胃圓(대평위원) ; 未詳

### 【國譯】

關脈이 數하면 胃中에 客熱이 있는 것이다. 知母圓이나 除熱湯을 服用하고, 巨厥과 上腕을 刺鍼하되 瀉한다.

關脈이 緩하면 사람이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으니 이는 胃氣가 고르지 못하고 脾氣가 不足하기 때문이다. 平胃圓이나 補脾湯을 服用하고, 章門穴을 刺鍼하되 補한다.

關脈이 滑하면 胃中에 熱이 있는 것이니, 滑한 것은 熱이 實하여 氣가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고 飲食을 먹으며 바로 吐逆하게 된다. 紫菀湯을 服用하여 下氣시키거나 大平胃圓을 服用하고, 中腕을 刺鍼하되 瀉한다. 『千金』

에 朴消麻黃湯이나 平胃丸을 服用한다고 하였다.

### 【原文】

關脈이 絃하면 胃中에 有寒<sup>1)</sup>해야 心下厥逆하니 此는 以胃氣虛故爾<sup>2)</sup>라 宜服茱萸湯<sup>1)</sup>하고 溫調飲食이요 針胃管호대 補之라

關脈이 弱하면 胃氣虛하고 胃中에 有客熱이니 脈弱은 爲虛熱이 作病<sup>3)</sup>이라 其說<sup>4)</sup>에 云 有熱이나 不可大攻之니 熱去則寒起니라 正<sup>5)</sup>宜服竹葉湯이요 針胃管호대 補之라

關脈이 瀉하면 血氣가 逆冷이니 脈瀉은 爲血虛해야 以中焦에 有微熱<sup>6)</sup>이라 宜服乾地黃湯 內補散<sup>7)</sup>이요 針足太衝上호대 補之라

### 【校勘】

1) 胃中有寒 ; 『千金』에는 ‘胃中有冷’으로 되어 있다.

2) 此以胃氣虛故爾 ; 『千金』에는 ‘脈弦胃氣虛’로 되어 있다.

3) 爲虛熱作病 ; 『校釋』에는 ‘爲虛熱作痛’으로 되어 있다.

4) 其說 ; 『千金』에는 ‘且說’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따른다.

5) 正 ; 『校釋』에는 ‘止’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따른다.

6) 以中焦有微熱 ; 『千金』에는 없다

7) 內補散 ; 『千金』에는 ‘四補散’으로 되어 있다.

### 【註釋】

(1) 茱萸湯(수유탕) ; 未詳

【國譯】

關脈이 弦하면 胃中에 寒氣가 있어 心下가 厥逆하니 이는 胃氣가 虛하기 때문이다. 茱萸湯을 服用하고 飲食을 따듯하고 조절하고, 中脘을 刺鍼하되 補한다.

關脈이 弱하면 胃氣가 虛하고 胃中에 客熱이 있으니, 脈이 弱한 것은 虛熱로 病이 되는 것이다. 또는 어떤 說에 熱이 있지만 크게 攻下할 수 없으니 熱이 물러가면 寒氣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竹葉湯을 服用하고, 中脘을 刺鍼하되 補한다.

關脈이 澹하면 血氣가 逆冷하니 脈이 澹한 것은 血虛하여 中焦에 微熱이 있는 것이다. 乾地黃湯이나 內補散을 服用하고, 발의 太衝 上에 刺鍼하되 補한다.

【原文】

關脈이 抔하면 大便에 去血이 數斗<sup>(1)</sup>者니 以膈輸<sup>(2)</sup>傷故也<sup>(1)</sup>라 宜服生地黃并生竹皮湯<sup>(3)</sup>이요 灸膈輸라 若重下去血者는 針關元<sup>(4)</sup>하고 甚者는 宜服龍骨圓<sup>(5)</sup>하면 必愈<sup>(3)</sup>라

關脈이 伏하면 中焦에 有水氣<sup>(4)</sup>하야 澹泄<sup>(6)</sup>이라 宜服水銀圓<sup>(7)</sup>하고 針關元하야 利小便하면 澹泄<sup>(6)</sup>이 便止라

關脈이 沈하면 心下에 有冷氣하야 苦滿呑酸이라 宜服白薇<sup>(7)</sup>茯苓圓<sup>(8)</sup> 附子湯이요 針胃管호대 補之라

【校勘】

- 1) 數斗者 以膈輸傷故也 ; 『千金』에는 없고, '數斗者'는 『錢本』과 『周本』에는 '數升者'로 되어 있다.
- 2) 龍骨圓 ; 『校釋』에는 '龍骨丸'으로 되어 있다.
- 3) 必愈 ; 『千金』에는 없다.

- 4) 中焦有水氣 ; 『千金』에는 '有水氣'로 되어 있다.
- 5) 水銀圓 ; 『千金』에는 '濫脾丸'으로 되어 있다.
- 6) 澹泄 ; 『千金』에는 '止澹泄'로 되어 있다.
- 7) 白薇 ; 『千金』에는 '白薇丸'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斗 ; 十升, 말 두
- (2) 膈輸(격수) ; 足太陽膀胱經의 穴로, 第七椎下 兩旁에서 一寸 五分떨어진 곳에 있다.
- (3) 生竹皮湯(생죽피탕) ; 未詳
- (4) 關元(관원) ; 任脈의 穴로, 臍下 3寸 부위에 있다.
- (5) 龍骨圓(용골원) ; 未詳
- (6) 澹泄(당설) ; 粘液이 섞인 묽은 대변을 보며 소변은 붉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마른 증상.
- (7) 水銀圓(수은원) ; 未詳
- (8) 白薇茯苓圓(백미복령원) ; 未詳

【國譯】

關脈이 抔하면 대변에 나오는 피가 여러 말이 되니 이것은 膈輸가 傷했기 때문이다. 生地黃并生竹皮湯을 服用하고 膈輸에 뜸을 뜬다. 만약 거듭 下血하면 關元에 刺鍼하고, 심한 경우는 龍骨圓을 服用하면 반드시 낫는다.

關脈이 伏하면 中焦에 水氣가 있어서 澹泄한다. 水銀圓을 服用하고 關元에 刺鍼하여 小便이 잘 통하면 澹泄이 바로 그친다.

關脈이 沈하면 心下에 冷氣가 있어서 苦滿하고 呑酸한다. 白薇茯苓圓이나 附子湯을 服用하고, 中脘에 刺鍼하되 補한다.

【原文】

關脉이 濡<sup>1)</sup>하면 苦虛冷하고 脾氣弱하여 重下病<sup>(1)</sup>이라 宜服赤石脂湯<sup>(2)</sup> 女萎圓<sup>2)(3)</sup>이요 針關元<sup>3)</sup>호대 補之라

關脉이 遲하면 胃中寒이라 宜服桂枝圓<sup>4)(4)</sup> 茱萸湯이요 針胃管호대 補之라

關脉이 實하면 胃中痛이라 宜服梔子湯<sup>5)</sup> 茱萸烏頭圓<sup>6)(5)</sup>이요 針胃管호대 補之라

【校勘】

- 1) 濡 ; 『千金』에는 ‘軟’으로 되어 있다.
- 2) 女萎圓 ; 『校釋』에는 ‘女萎丸’으로 되어 있다.
- 3) 鍼關元 ; 『千金』에는 ‘鍼胃脘’으로 되어 있다.
- 4) 桂枝圓 ; 『校釋』에는 ‘桂枝丸’으로 되어 있다.
- 5) 茱萸烏頭圓 ; 『校釋』에는 ‘茱萸烏頭丸’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重下病(중하병) ; 심한泄瀉.
- (2) 赤石脂湯(적석지탕) ; 未詳
- (3) 女萎圓(여위원) ; 未詳
- (4) 桂枝圓(계지원) ; 未詳
- (5) 梔子湯(치자탕) ; 未詳
- (6) 茱萸烏頭圓(수유오두원) ; 未詳

【國譯】

關脈이 濡하면 虛冷하고 脾氣가 약하여 重下病을 앓는다. 赤石脂湯이나 女萎圓을 服用하고, 關元을 刺鍼하되 補한다.

關脈이 遲하면 胃中이 寒하다. 桂枝圓이나 茱萸湯을 服用하고, 中脘을 刺鍼하되 補한다.

關脈이 實하면 胃脘이 아프다. 梔子湯이나 茱萸烏頭圓을 服用하고, 中脘을 刺鍼하되 補한다.

【原文】

關脉이 牢<sup>1)</sup>하면 脾胃氣塞하고 盛熱하여 卽腹滿響響<sup>(2)</sup>이라 宜服紫菀圓<sup>(3)1)</sup> 瀉脾圓<sup>(4)2)</sup>이요 針灸胃管호대 瀉之라

關脉이 細하면 虛<sup>3)</sup>하여 腹滿이라 宜服生薑茱萸蜀椒湯<sup>(5)4)</sup> 白薇圓이요 針灸三管<sup>(6)5)</sup>이라

關脉이 洪하면 胃中熱로 必煩滿이라 宜服平胃圓이요 針胃管호대 先瀉後補之라

右는 中部關脉의 十八條라

【校勘】

- 1) 紫菀圓 ; 『校釋』에는 ‘紫菀丸’으로 되어 있다.
- 2) 瀉脾圓 ; 『校釋』에는 ‘瀉脾丸’으로 되어 있다.
- 3) 關脈細虛 ; 『錢本』과 『周本』에는 ‘關脈細 脾胃虛’로 되어 있다.
- 4) 宜服生薑茱萸蜀椒湯 ; 『千金』에는 ‘宜服生薑湯 茱萸蜀椒湯’으로 되어 있다.
- 5) 針灸三管 ; 『校釋』에는 ‘針灸三脘’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牢(노) ; 牢脈. 沈脈같기도 하고 伏脈같기도 하면서 세게 눌러 깊으면 實하고 弦長한 脈이다.
- (2) 響響(향향) ; 본래 메아리를 말하나 여기에 서는 腸鳴을 가리킨다. \* 響 ; 聲之外曰響卽影響, 소리 울릴 향
- (3) 紫菀圓(자원원) ; 未詳
- (4) 瀉脾圓(사비원) ; 未詳
- (5) 生薑茱萸蜀椒湯(생강수유촉초탕) ; 未詳

(6) 三管(삼관) ; 上腕·中腕·下腕穴을 말한다.

【國譯】

關脈이 牢하면 脾胃의 氣가 막혀서 熱氣가 旺盛하기 때문에 腹滿과 腹鳴이 발생한다. 紫苑圓이나 瀉脾圓을 服用하고, 中腕을 刺鍼과 뜸을 Em되瀉한다.

關脈이 細하면 虛하여 腹滿이 발생한다. 生薑茱萸蜀椒湯이나 白薇圓을 服用하고, 上·中·下腕에 刺鍼하고 뜸을 뜬다.

關脈이 洪하면 胃中에 熱이 있어 반드시 煩滿이 발생한다. 平胃圓을 服用하고, 中腕을 刺鍼하되 먼저 瀉한 후에 補한다.

以上은 中部關脈의 脈證治 十八條이다.

第 3 章 下部尺脈의 脈證治 十六條

【原文】

尺脉이 浮하면 下熱風으로 小便難이라 宜服瞿麥湯<sup>(1)</sup> 滑石散<sup>(2)</sup>이요 針橫骨<sup>(3)</sup> 關元호대 瀉之라

尺脉이 緊하면 臍下痛이라 宜服當歸湯<sup>(4)</sup>이요 灸天樞<sup>(5)</sup>하고 針關元호대 補之라

尺脉이 微하면 厥逆하고 小腹中이 拘急하니 有寒氣라 宜服小建中湯<sup>(6)</sup>이요 一本엔 更有四順湯이라 針氣海<sup>(7)</sup>라

【校勘】

1) 針氣海 ; 『繆本』·『周本』·『張本』·『校釋』에는 모두 없다.

【註釋】

(1) 瞿麥湯(구맥탕) ; 未詳

(2) 滑石散(활석산) ; 未詳

(3) 橫骨(횡골) ; 足少陰腎經의 穴로, 小腹의 毛際恥骨의 上緣部 正中에 있는 曲骨穴의 左右로 5分 떨어진 곳에 있다.

(4) 當歸湯(당귀탕) ; 未詳

(5) 天樞(천추) ; 足陽明胃經의 穴로, 臍의 左右로 2寸부위에 있다.

(6) 小建中湯(소건중탕) ; 『傷寒論』의 處方으로, 處方構成은 桂枝·生薑 各三兩, 炙甘草 二兩, 大棗 十二枚, 芍藥 六兩, 飴糖 一升이다. 이상을 물에 다려 찌꺼기를 버리고 飴糖을 녹인 후 세 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7) 氣海(기해) ; 任脈의 穴로, 臍下 1寸5分부위에 있다.

【國譯】

尺脈이 浮하면 下焦에 熱風이 있어서 小便을 보기가 힘들다. 瞿麥湯이나 滑石散을 服用하고, 橫骨과 關元을 刺鍼하되 瀉한다.

尺脈이 緊하면 臍下가 아프다. 當歸湯을 服用하고, 天樞에 뜸을 뜨고 關元을 刺鍼하되 補한다.

尺脈이 微하면 厥逆하고 少腹이 당기니 寒氣가 있기 때문이다. 小建中湯을 服用하고 어떤 本에는 四順湯이 더 있다. 氣海에 刺鍼한다.

【原文】

尺脉이 數하면 惡寒하고 臍下熱痛하고 小便赤黃이라 宜服雞子湯<sup>(1)</sup> 白魚散<sup>(2)</sup>이요 針橫骨호대 瀉之라

尺脉이 緩하면 脚弱下腫하고 小便難하며 有餘

瀝이라 宜服滑石湯 瞿麥散이요 針橫骨호대 瀉之라  
尺脈이 滑하면 血氣實하야 婦人은 經脈不利<sup>(3)</sup>  
하고 男子는 尿血<sup>1)</sup>이라 宜服朴消煎<sup>(4)</sup>이나 大黃湯  
하야 下去經血이요 針關元호대 瀉之라

【校 勘】

1) 婦人經脈不利 男子尿血 ; 『千金』에는 '經脈不利'로 되어 있다.

【注 釋】

- (1) 鷄子湯(계자탕) ; 未詳
- (2) 白魚散(백어산) ; 未詳
- (3) 經脈不利(경맥불리) ; 月經이 순조롭지 못한 것.
- (4) 朴消煎(박소전) ; 未詳

【國 譯】

尺脈이 數하면 惡寒하고 臍下에 熱痛이 있으며 小便色이 赤黃하다. 鷄子湯이나 白魚散을 服用하고, 橫骨을 刺鍼하되 瀉한다.

尺脈이 緩하면 다리가 약하고 부으며 小便을 보기 어렵고 殘尿가 있다. 滑石湯이나 瞿麥散을 服用하고, 橫骨을 刺鍼하되 瀉한다.

尺脈이 滑하면 血氣가 實하야 婦人은 月經이 고르지 못하고 男子는 尿血이 발생한다. 朴消煎이나 大黃湯을 服用하야 그 經血을 통하게 하고, 關元을 刺鍼하되 瀉한다.

【原 文】

尺脈이 絃하면 小腹痛하고 小腹及脚中拘急이라 宜服建中湯<sup>(1)</sup> 當歸湯이요 針氣海<sup>1)</sup>호대 瀉之라  
尺脈이 弱하면 陽氣少<sup>(2)</sup>하야 發熱骨煩<sup>(2)</sup>이라 宜

服前胡湯 乾地黃湯 茯苓湯<sup>3)</sup>이요 針關元호대 補之라  
尺脈이 濇하면 足脛逆冷하고 小便赤이라 宜服 附子四逆湯<sup>(3)</sup>이요 針足大衝호대 補之라

【校 勘】

- 1) 氣海 ; 『廣本』에는 '血海'로 되어 있다.
- 2) 陽氣少 ; 『千金』에는 '氣少'로 되어 있다.
- 3) 乾地黃湯 茯苓湯 ; 『千金』에는 '乾地黃茯苓湯'으로 되어 있다.

【註 釋】

- (1) 建中湯(건중탕) ; 未詳
- (2) 骨煩(골번) ; 骨蒸煩熱. 虛勞病 때 뼈 속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증.
- (3) 附子四逆湯(부자사역탕) ; 未詳

【國 譯】

尺脈이 弦하면 少腹이 아프고 少腹에서 다리까지 당긴다. 建中湯이나 當歸湯을 服用하고, 氣海를 刺鍼하되 瀉한다.

尺脈이 弱하면 陽氣가 적어서 發熱 骨煩한다. 前胡湯이나 乾地黃湯, 茯苓湯을 服用하고, 關元을 刺鍼하되 補한다.

尺脈이 濇하면 발과 정강이가 逆冷하고 小便이 붉다. 附子四逆湯을 服用하고, 太衝을 刺鍼하되 補한다.

【原 文】

尺脈이 芤하면 下焦虛하야 小便에 去血이라 宜服竹皮生地黃湯<sup>(1)</sup>이요 灸丹田<sup>(2)</sup> 關元커나 亦針補之<sup>1)</sup>라

尺脉이 伏하면 小腹痛하고 癥疝<sup>(3)</sup> 水穀不化라 宜服大平胃圓 桔梗圓<sup>(4)2</sup>이요 針關元호대 補之라 桔梗圓<sup>2</sup>을 一云 結腸圓<sup>3</sup>이라

尺脉이 沈하면 腰背痛이라 宜服腎氣圓<sup>(5)4</sup>이요 針京門<sup>6</sup>호대 補之라

尺脉이 濡<sup>5</sup>하면 苦小便難<sup>6</sup>이라 千金에 云 脚不收風痺<sup>(7)</sup>라하니라 宜服瞿麥湯 白魚散이요 針關元호대 瀉之라

### 【校 勘】

- 1) 亦鍼補之; 『千金』에는 없다.
- 2) 桔梗圓; 『校釋』에는 '桔梗丸'으로 되어 있다.
- 3) 結腸圓; 『校釋』에는 '結腸丸'으로 되어 있다.
- 4) 腎氣圓; 『校釋』에는 '腎氣丸'으로 되어 있다.
- 5) 濡; 『千金』에는 '軟'으로 되어 있다.
- 6) 苦小便難; 『千金』에는 '脚不收風痺 小便難'으로 되어 있다.

### 【註 釋】

- (1) 竹皮生地黃湯(죽피생지황탕); 未詳
- (2) 丹田(단진); 任脈의 穴로, 臍下 1寸5分되는 곳에 있다.
- (3) 癥疝(정산); 臍中の 氣가 갑자기 脹滿하여 胃腸이 滯기하고 팽창하며 胃脘部가 아픈 증상.
- (4) 桔梗圓(길경원); 未詳
- (5) 腎氣圓(신기원); 『金匱要略』의 腎氣丸으로, 腎陽不足으로 腰痠脚軟, 少腹拘急, 小便不利, 或小便反多, 脈虛弱 및 脚氣, 痰飲, 消渴, 轉胞 등을 치료한다. 乾地黃 八兩, 山藥·山茱萸 各四兩, 澤瀉·牡丹皮·茯苓 各三兩, 桂枝·炮附子 各一兩을 가루내어 煉蜜로 梧子 크기로 丸을 만들고 매번 15~25丸씩 매일 2번씩 술로 삼킨다.
- (6) 京門(경문); 足少陽膽經의 穴로, 第12肋骨

端의 아랫면에 있다.

(7) 風痺(풍비); 風寒濕의 邪氣가 팔다리의 關節과 經絡에 침범해서 생기는데 그 중에서 風邪가 성한 痺證을 말한다.

### 【國 譯】

尺脈이 扞하면 下焦가 虛하여 小便으로 出血한다. 竹皮生地黃湯을 服用하고, 丹田과 關元에 뜸을 뜨고 刺鍼하되 補한다.

尺脈이 伏하면 小腹이 아프고 癥疝가 발생하며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는다. 大平胃圓이나 桔梗圓을 服用하고, 關元을 刺鍼하되 補한다. 桔梗圓을 結腸圓이라고도 했다.

尺脈이 沈하면 腰背가 아프다. 腎氣圓을 服用하고, 京門을 刺鍼하되 補한다.

尺脈이 濡하면 小便을 보기 어렵다. 『千金』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風痺가 생긴다고 하였다. 瞿麥湯이나 白魚散을 服用하고, 關元에 刺鍼하되 瀉한다.

### 【原 文】

尺脉이 遲하면 下焦에 有寒이라 宜服桂枝圓이요 針氣海 關元호대 補之<sup>1</sup>라

尺脉이 實하면 小腹痛하고 小便不禁이라 宜服當歸湯加大黃一兩하야 以利大便<sup>2</sup>하고 針關元호대 補之면 止小便<sup>3</sup>이라

尺脉이 牢하면 腹滿하고 陰中急이라 宜服葶藶子茱萸圓<sup>(1)4</sup>이요 針丹田 關元 中極<sup>(2)</sup>이라

右는 下部尺脉의 十六條라

### 【校 勘】

- 1) 補之; 『千金』에는 '瀉之'로 되어 있다.

- 2) 以利大便 ; 『千金』에는 ‘利大便’으로 되어 있다.
- 3) 止小便 ; 『千金』에는 없다.
- 4) 葶藶子茱萸圓 ; 『校釋』에는 ‘葶藶子茱萸丸’으로 되어 있다.

【注 釋】

- (1) 葶藶子茱萸圓(정력자수유원) ; 未詳
- (2) 中極(중극) ; 任脈의 穴로, 臍下 4寸되는 부위에 있다.

【國 譯】

尺脈이 遲하면 下焦에 寒氣가 있다. 桂枝圓을 服用하고, 氣海와 關元을 刺鍼하되 補한다.

尺脈이 實하면 小腹이 아프고 小便을 참지 못한다. 當歸湯에 大黃一兩을 加하여 服用하여 大便을 잘 나가게 하고 關元을 刺鍼하되 補하면 小便이 그치게 된다.

尺脈이 牢하면 배가 그득하고 陰部가 당긴다. 葶藶子茱萸圓을 服用하고, 丹田과 關元, 中極穴을 刺鍼한다.

以上은 下部尺脈의 脈證治 十六條이다.

平奇經八脈病第四

(奇經八脈의 病證에 대한 分辨)

第 1 章 奇經八脈의 名稱과 意義

【原 文】

脉有奇經八脉者<sup>1)</sup>는 何謂也오 然이라 有陽維陰維하고 有陽蹻陰蹻하고 有衝有督하고 有任有帶之脉이니 凡此八脉者는 皆不拘於經이라 故로 曰 奇經八脉也라 經有十二하고 絡有十五하야 凡二十七氣는 相隨上下나 何獨不拘於經也오 然이라 聖人

이 圖<sup>1)</sup>設溝渠<sup>2)</sup>하야 通利水道하야 以備不虞<sup>3)2)</sup>라 天雨降下에 溝渠溢滿하야 ； 雲霓<sup>4)</sup>妄行하면 當此之時<sup>3)</sup>엔 聖人도 不能復圖也나 此絡脉<sup>5)</sup>이 流溢<sup>4)</sup>하면 諸經이 不能復拘也라

【校 勘】

1) 脈有奇經八脈者 ; 『難經·二十七難』에는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으로 되어 있다.

2) 以備不虞 ; 『難經』에는 ‘以備不然’으로 되어 있다.

3) ； 雲霓妄行 當此之時 ; 『難經』에는 ‘當此之時 ； 雲霓妄行’으로 되어 있으며, 『難經本義』에는 ‘當此之時 ； 雲霓妄作’으로 되어 있다.

4) 此絡脈流溢 ; 『難經』에는 ‘此絡脈滿溢’로 되어 있다.

【註 釋】

- (1) 圖 ; 謀也, 꾀할 도
- (2) 溝渠(구거) ; 도랑. \* 溝 ; 水瀆也, 도랑 구. 渠 ; 溝也, 도랑 거
- (3) 虞 ; 側也, 측량할 우
- (4) ； 雲霓(방패) ; 滂沛. 매우 많은 비가 오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21) \* ； 雲 ; 大雨也, 비퍼부를 방. 霈 ; 大雨, 왈각 쏟아질 때
- (5) 此絡脈(차락맥) ; 奇經八脈을 말한다.22)

21) “‘滂霈’ 同滂沛, 形容大雨的情景.”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86

22) “此絡脈三字, 越人正指奇經而言也. 既不拘於經, 直謂之絡脈亦可也.”  
 滑 壽; 難經本義, 集文書局, 台北, 1982, p.91



【國 譯】

經脈에 奇經八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陽維脈·陰維脈·陽蹻脈·陰蹻脈·衝脈·督脈·任脈·帶脈이 있는데, 이 8개의 經脈은 모두 正經에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奇經八脈이라고 한다. 經脈은 12개가 있고 絡脈은 15개가 있어서 무릇 27氣가 서로 위아래로 흐르는데 왜 유독 奇經만이 經脈에 예속되지 않는가? 聖人이 도량을 만들어 물길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에 대비케 하였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도량이 차서 넘쳐 범람하게 되면 이러한 때에는 聖人이라도 다시 도모할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 이 絡脈이 흘러 넘치면 모든 經脈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第 2 章 奇經八脈의 起止와 循行 經路

【原 文】

奇經八脉者는 既不拘於十二經이라하니 皆何起何繫也오 然이라 陽維者는 起於諸陽之會<sup>(1)</sup>하고 陰維者는 起於諸陰之交<sup>(2)</sup>라 陽維陰維者는 維絡<sup>(3)</sup>于身하야 溢畜不能環流<sup>(4)</sup>溉灌<sup>(5)</sup>諸經者也라 陽蹻者는 起於跟<sup>(6)</sup>中하야 循外踝<sup>(7)</sup>而上行하야 入風池<sup>(8)</sup>요 陰蹻者도 亦起於跟中하야 循內踝而上行하야 至咽喉하야 交貫衝脉<sup>(1)</sup>이라 衝脉者는 起於關元<sup>(9)</sup>하야 循腹裏하야 直上至咽喉中이라 一云 衝脉者는 起於氣衝<sup>(10)</sup>하야 並陽明之經하고 夾臍上行하야 至胸中而散也라하니라 督脉者는 起於下極之輪<sup>(11)</sup>하야 並於脊裏하야 循背하야 上至風府<sup>(12)</sup>라 衝脉者는 陰脉之海也오 督脉者는 陽脉之海也<sup>(3)</sup>라 任脉者는 起於胞門子戶<sup>(13)</sup>하야 夾臍上行하야 至胸中이라 一云 任脉者는 起於中極<sup>(14)</sup>之下하야 以上毛際

<sup>(15)</sup>하야 循腹裏하야 上關元하야 至喉咽라하니라 帶脉者는 起於季肋<sup>(16)</sup>하야 難經엔 作季脇이라 廻身一周라 此八者는 皆不繫於十二經 故로 曰 奇經八脉者也라

【校 勘】

- 1) 交貫衝脈 ; 『廣本』에는 '交貫衝月血'으로 되어 있다.
- 2) 循背上至風府 ; 『難經』에는 '上至風府 入屬於腦'로 되어 있다.
- 3) 衝脉者 陰脉之海也 督脉者 陽脉之海也 ; 『難經』에는 없다.

【註 釋】

- (1) 諸陽之會(제양지회) ; 足太陽膀胱經의 金門穴을 말한다.<sup>23)</sup>
- (2) 諸陰之交(제음지교) ; 足少陰腎經의 築賓穴을 말한다.<sup>24)</sup>
- (3) 維絡(유락) ; 얽어매다. \* 維 ; 係也, 繫 유
- (4) 還流(환류) ; 돌아서 흐르다.
- (5) 溉灌(개관) ; 灌溉. 논밭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물을 끌어대다.
- (6) 跟 ; 足踵, 발꿈치 근
- (7) 踝 ; 足之外, 복사뼈 과
- (8) 風池(풍지) ; 足少陽膽經의 穴로, 耳後 顛顚後 腦空下의 髮際의 陷中에 있다.
- (9) 關元(관원) ; 任脈의 穴로, 小腸의 募穴이 되며, 臍下 3寸되는 부위에 있다.

23) “陽維所發，別於金門，以陽交爲郄，……此陽維之起於諸陽之會也.”

上揭書; p.92

24) “陰柔之郄曰築賓，……此陰柔之起於諸陰之交也.”  
上揭書; p.93

(10) 氣衝(기충); 足陽明胃經의 穴로, 臍下 橫骨의 兩端에 위치하며 歸來穴下 1寸, 正中線上에서 2寸 떨어진 부위의 動脈이 뛰는 곳에 있다.

(11) 下極之輸(하극지수); 體幹의 最下部인 前後陰사이의 會陰穴을 말한다.<sup>25)</sup>

(12) 風府(풍부); 督脈의 穴로, 뒷목부위의 正中線上에서 髮際部로부터 1寸 上, 後頭骨의 直下와 제 1頸椎와의 사이 움푹한 곳에 있다.

(13) 胞門子戶(포문자호); 經外奇穴. 臍下 3寸에서 正中線으로부터 2寸 옆에 위치한다. 왼쪽을 胞門, 오른쪽을 子戶라고 한다.

(14) 中極(중극); 任脈의 穴로, 膀胱의 募穴이며 足三陰經의 會穴이다. 臍下 4寸 부위에 있다.

(15) 毛際(모계); 陰部의 털이 난 곳과 나지 않는 곳의 경계 부위를 말한다.

(16) 季肋(계륵); 季脇. 第11·12肋骨이 있는 부위로 軟肋이라고도 한다. 또한 足厥陰肝經의 章門穴의 異名이다.

### 【國譯】

奇經八脈은 이미 十二經脈에 예측되지 않는다 하니 모두 어디에서 일어나며 어디로 이어지는가?

陽維脈은 金門穴에서 일어나고, 陰維脈은 모든 築賓穴에서 일어난다. 陽維脈과 陰維脈은 全身을 엮어매고 있어서 經脈의 氣가 넘치는 것을 축적하는 것이지 돌아 흘러 모든 經脈으로 灌溉하는 것은 아니다.

陽蹻脈은 발땀꿈치에서 일어나서 外踝를 돌아 올라가서 風池穴로 들어가고, 陰蹻脈도 발땀꿈치에서 일어나서 內踝를 돌아 올라가서 咽喉에 이

르러서 衝脈과 交會貫通한다.

衝脈은 關元에서 일어나서 鬢속을 순행하여 바로 올라가 咽喉中에 이른다. 어떤 곳에는 “衝脈은 氣衝穴에서 일어나서 陽明經과 함께 배꼽을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러 흠어진다.”고 하였다.

督脈은 會陰穴에서 일어나서 脊椎의 안쪽으로 병행하고 등을 순행하고 위로 風府穴에 이른다. 衝脈은 陰脈의 海이고, 督脈은 陽脈의 海이다.

任脈은 胞門과 子戶에서 일어나 배꼽을 끼고 올라가 胸中에 이른다. 어떤 곳에는 “任脈은 中極穴의 아래에서 일어나서 毛際로 올라가고 鬢속으로 循行하여 關元穴로 올라가고 咽喉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帶脈은 季肋 『難經』에는 季脇으로 되어 있다. 에서 일어나서 몸을 한바퀴 돈다.

이 여덟 가지는 모두 十二經脈과 이어지지 않으므로 奇經八脈이라 한다.

## 第 3 章 奇經八脈의 病證

### 【原文】

奇經之爲病은 何如오 然이라 陽維는 維於陽하고 陰維는 維於陰하니 陰陽이 不能相維면 悵然<sup>1)</sup> 失志하고 容容 難經엔 作溶溶<sup>2)</sup>이라 不能自收持라 悵然者는 其人이 驚即維脉緩하고 緩即令身不能自收持하니 即失志善忘恍惚<sup>3)</sup>也라 陽維爲病은 苦寒熱<sup>4)</sup>이요 陰維爲病은 苦心痛이라 陽維는 爲衛니 衛爲寒熱이요 陰維는 爲榮하고 榮爲血하니 血者는 主心 故로 心痛也라 陰蹻爲病은 陽緩而陰急이요 陰蹻는 在內踝하니 病即其脉이 急하야 當從內踝以上이 急하고 外踝以上이 緩이라 陽蹻爲病은 陰緩而陽急이라 陽蹻는 在外踝하니 病即其脉이 急하야 其人之 當從外踝以上이 急하고 內踝以上이 緩이라 衝之爲病은 逆氣<sup>5)</sup>而裏急하고 衝

25) “督之爲言都也, ……其脈起下極之輸, 由會陰歷長強…….”

上揭書; p.92

脈은 從關元으로 至喉咽 故로 其爲病이 逆氣而裏急이라 督之爲病은 脊彊而厥이라 督脈은 在背하니 病卽其脈이 急 故로 令脊彊也라 任之爲病은 其內苦結하야 男子는 爲七疝<sup>(6)</sup>이요 女子는 爲瘕聚<sup>(7)</sup>라 任脈이 起於胞門子戶 故로 其病이 結爲七疝瘕聚라 帶之爲病은 苦腹滿하고 腰容容이 難經엔 作溶溶이라 若坐水中狀이라 帶脈者는 迴<sup>(8)</sup>帶人之身體하니 病卽其脈이 緩이라 故로 令腰容容也라 此는 奇經八脈之爲病也라

【註釋】

- (1) 悵然(창연) ; 悵悵. 失意하여 한탄하는 모양. \* 悵 ; 失意貌, 실심할 창
- (2) 溶溶(용용) ; 無力하고 緩慢한 모양.
- (3) 恍惚(황홀) ; 정신이 불안정하고 혼란하여 주관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 (4) 寒熱(한열) ; 惡寒發熱.
- (5) 逆氣(역기) ; 腹部的 기운이 거슬러 올라가는 증상.
- (6) 七疝(칠산) ; 衝疝, 狐疝, 癪疝, 厥疝, 疝瘕, 瘕疝을 七疝이라고 한다. 衝疝은 少腹部的 통증으로 辜丸까지 땅기고 氣가 心으로 치솟으며 大小便이 원활하지 못한 증상이다. 狐疝은 어떤 덩어리가 陰囊으로 들어가 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상이다. 癪疝은 갑자기 上腹部가 아프고 腹脹 및 氣塊 증상이 발생하는 증상이다. 厥疝은 배꼽 주변에 絞痛이 발생하고, 惡心·胃脘疼痛·吐冷涎出·四肢厥冷·脈虛大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疝瘕는 小腹部에 열이 나면서 아프고 요도에서 백색의 점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이다. 瘕疝은 陰囊이 크게 붓거나 혹은 진물러서 膿血이 흐르는 증상이다. 瘕疝은 少腹痛으로 辜丸이 땅기고 小便不通한 증상이다.
- (7) 瘕聚(가취) ; 婦女的 下腹部에 腫塊가 생겨

서 밀면 밀리고 痛處가 一定하지 않은 病症.

(8) 迴 ; 與回·廻同, 돌 회

【國譯】

奇經八脈의 病證은 어떠한가? 陽維脈은 陽經을 纏어매고 陰維脈은 陰經을 纏어매니 陰과 陽이 서로 纏어매지 못하면 失意에 빠져 허탈해 하고 무력해져 『難經』에는 溶溶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 悵然이라는 것은 사람이 놀라면 維脈이 늘어지고 維脈이 늘어지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게 되니 의욕이 상실되어 잘 잊어버리고 정신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陽維脈이 병들면 惡寒發熱로 괴로워하고 陰維脈이 병들면 心痛으로 괴로워한다. 陽維脈은 衛氣를 주재하니 衛氣가 병들게 되면 惡寒發熱하게 되고, 陰維脈은 榮血을 주재하니 榮血은 心이 주재하므로 心痛하게 된다. 陰蹻脈이 병들면 陽은 늘어지고 陰이 당기게 되고, 陰蹻脈은 內踝에 있으니 陰蹻脈이 병이 들면 그 脈이 당겨서 內踝 이상은 당기고 外踝 이상은 늘어진다. 陽蹻脈이 병들면 陰은 늘어지고 陽이 당기게 된다. 陽蹻脈은 外踝에 있으니 陽蹻脈이 병들면 그 脈이 당겨져서 그 사람의 外踝 이상은 당기고 內踝 이상은 늘어진다. 衝脈이 병들면 腹部的 氣가 上逆하고 腹部的 안쪽이 당기게 되고, 衝脈은 關元에서 咽喉에 이르므로 衝脈에 병이 들면 腹部的 氣가 上逆하고 腹部的 안쪽이 당기게 된다. 督脈이 병들면 脊椎가 뻣뻣하고 싸늘하게 된다. 督脈은 脊部에 있으니 督脈이 병이 들면 그 脈이 당기게 되므로 脊部가 뻣뻣하게 된다. 任脈이 병들면 腹部안쪽이 심하게 뭉쳐서 男子는 七疝이, 女子는 瘕聚가 발생한다. 任脈은 胞門·子戶에서 일어나므로 任脈이 병들면 기운이 뭉쳐서 七疝과 瘕聚가 발생한다. 帶脈이 병들면 腹部脹滿하고 腰部가 무력하여 『難經』에는 溶溶

으로 되어 있다. 물 속에 앉아있는 것 같다. 帶脈은 사람의 몸을 허리띠처럼 두르고 있으니 帶脈이 병이 들면 그 脈이 늘어지므로 허리가 무력하게 된다. 이것은 奇經八脈의 病證이다.

#### 第 4 章 二維·帶脈病의 脈象과 病證

##### 【原文】

診得陽維脈이 浮者는 暫<sup>(1)</sup>起目眩하니 陽盛實이 요 苦肩息<sup>(2)</sup>하고 洒<sup>(3)</sup>洒如寒이라  
 診得陰維脈이 沈大而實者는 苦胸中痛 脅下支滿<sup>(4)</sup>心痛이라  
 診得陰維<sup>(1)</sup>이 如貫珠<sup>(5)</sup>者는 男子는 兩脅實<sup>(6)</sup>하고 腰中痛하며 女子는 陰中痛이 如有瘡狀이라  
 診得帶脈<sup>(2)</sup> 左右繞<sup>(7)</sup>臍腹腰痛衝陰股<sup>(8)</sup>也

##### 【校勘】

- 1) 陰維 ; 앞 문장의 예에 의거하면 이 다음에 '脈'字가 탈락된 것 같다.
- 2) 帶脈 ; 앞 문장의 예에 의거하면 이 다음에 문장이 탈락된 것 같으므로, 國譯은 생략한다.

##### 【註釋】

- (1) 暫 ; '暫'과 같음. 不久須臾, 갑자기 잠
- (2) 肩息(견식) ; 숨을 쉴 때 어깨를 들썩거리는 것을 가리킨다.
- (3) 洒 ; 寒慄貌, 으슬으슬 떨릴 쇠
- (4) 支滿(지만) ; 속이 치받치는 것 같으면서 그득한 것이다.
- (5) 如貫珠(여관주) ; 꿰 구슬과 같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滑脈을 말한다.<sup>26)</sup>
- (6) 實 ; 滿也, 찼 실

(7) 繞 ; 圍也, 둘릴 요

(8) 陰股(음고) ; 股陰. 大腿의 內側을 말한다.

##### 【國譯】

陽維脈을 診脈하여 浮하면 갑자기 目眩症이 일어나니 陽氣가 旺盛하고 實하기 때문이고 肩息과 으실으실 추운 것으로 괴로워한다.

陰維脈을 診脈하여 沈大하면서 實하면 胸中疼·脇下支滿·心痛이 발생하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陰維脈을 診脈하여 마치 꿰 구슬과 같으면 男子는 양 옆구리가 그득하고 허리가 아프며 女子는 瘡瘍이 생긴 듯이 陰部가 아프다.

#### 第 5 章 督衝·二蹻病의 脈象과 病證

##### 【原文】

兩手脈이 浮之에 俱有陽<sup>(1)</sup>하고 沈之에 俱有陰<sup>(2)</sup>하야 陰陽이 皆實盛者는 此爲衝督之脈也라 衝督之脈者는 十二經之道路也니 衝督이 用事<sup>(3)</sup>則十二經이 不復朝於寸口하야 其人이 皆苦恍惚狂癡<sup>(4)</sup>이요 不者는 必當由豫有兩心<sup>(5)</sup>也라  
 兩手陽脈이 浮而細微하야 綿綿<sup>(6)</sup>不可知하고 俱有陰脈하야 亦復細綿綿하면 此는 爲陰蹻陽蹻之脈也라 此家는 曾<sup>(7)</sup>有病鬼魅<sup>(8)</sup>風死<sup>(9)</sup>하야 苦恍惚하니 亡人爲禍也<sup>(1)</sup>라

診得陽蹻<sup>(2)</sup> 病拘急<sup>(10)</sup> 陰蹻 病緩<sup>(11)</sup>

##### 【校勘】

- 1) 此家曾有病鬼魅風死苦恍惚亡人爲禍也 ; 『黃本』과 『周本』에는 이 다음에 小注로 “상고하건대

26) 朴 旻; 國譯奇經八脈考,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144

袁校本에 ‘此家’ 이하의 17字는 아마도 연문인 것 같고, 어떤 本에는 없다(案, 袁校本云: 此家以下十七字疑衍, 一本無).”고 하였다.

2) 陽蹻; 앞 문장의 예에 의거하면 이 다음에 문장이 탈락된 것 같으므로, 國譯은 생략한다.

### 【註釋】

- (1) 陽(양); 陽脈. 大·浮·滑·數·動을 말한다.
- (2) 陰(음); 陰脈. 沈·瀉·弦·微·弱을 말한다.
- (3) 用事(용사); 주재한다는 뜻이다.
- (4) 狂癡(광치); 狂症. \* 癡; 狂也, 미치광이 치
- (5) 由豫有兩心(유예유양심); 猶豫兩心.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림.<sup>27)</sup>
- (6) 綿綿(면면); 연속되어 끊어짐이 없음을 말한다.
- (7) 曾; 嘗也, 일찍 증
- (8) 鬼魅(귀매); 도깨비. \* 魅; 魃, 도깨비 매
- (9) 風死(풍사); 돌립병이나 전염병으로 죽음.
- (10) 拘急(구급); 肢體가 땅겨 불편하거나, 혹은 筋이 오그라들어 屈伸에 장애가 오는 증상을 가리킨다.
- (11) 病緩(병완); 병이 낫는다는 의미가 아닌 몸이 늘어진다는 의미이다.

### 【國譯】

양손의 脈을 浮取하여도 모두 陽脈이 있고, 沈取하여도 모두 陰脈이 있어서 陰脈과 陽脈이 모두 뚜렷한 것은 衝脈과 督脈의 脈이다. 衝脈과 督脈은 十二經의 道路이므로 衝脈과 督脈이 주재하면 十二經이 寸口에서 다시 모이지 못해서 그 사

람이 모두 精神異常과 狂症으로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게 된다.

양손의 浮部位에서 浮하면서 細微하여 겨우 이어지거나 알기가 힘들고, 모두 沈部位에서 또 가늘고 겨우 이어지는 것은 陰蹻脈과 陽蹻脈이다. 이러한 사람은 일찍이 귀신에 홀리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서 精神異常이 되니 죽은 자의 魂魄이 화를 일으킨 것이다.

## 第 6 章 督脈·衝脈·任脈病的 脈象과 病證

### 【原文】

尺寸이 俱浮하고 直上直下<sup>(1)</sup>하면 此는 爲督脈이니 腰背强痛하야 不得俛仰하고 大人은 癩病<sup>(2)</sup>이요 小人은 風癩疾<sup>(3)</sup>이라

脈來에 中央<sup>(4)</sup>이 浮하고 直上下痛者<sup>(1)</sup>는 督脈也니 動하면 苦腰背膝寒하고 大人은 癩이요 小兒은 癩也라 灸頂上<sup>(5)</sup>三圓<sup>(6)</sup>이니 正當頂上<sup>(2)</sup>이라

尺寸脈이 俱牢하야 一作芤라 直上直下하면 此는 爲衝脈이니 胸中에 有寒疝<sup>(7)</sup>也라

脈來에 中央이 堅實하고 徑<sup>(8)</sup>至關者는 衝脈也니 動하면 苦少腹痛<sup>(3)</sup> 上搶心 有癥疝<sup>(9)</sup> 絕孕 遺矢溺<sup>(4)</sup> 脅支滿煩也라

橫寸口邊<sup>(10)</sup>이 丸丸<sup>(11)</sup>하면 此는 爲任脈이니 苦腹中에 有氣如指<sup>(12)</sup>하야 上搶心하야 不得俛仰拘急이라

脈來에 緊細實長이 至關者는 任脈也<sup>(6)</sup>니 動하면 苦少腹繞臍下 引橫骨<sup>(13)</sup>陰中切痛이라 取臍下三寸<sup>(14)</sup>이라

### 【校勘】

- 1) 痛者; 『錢本』에는 이 다음에 小字注로 “상

27) 朴 晷; 國譯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87

고하건대 痛者가 상세하지 못하는데 『奇經考』를 인용하여 動으로 하면 대개 의미가 고쳐진다(案, 痛者未詳, 『奇經考』引作動, 蓋以意改).”라고 하였다. 위아래의 문장에 근거로 보면 ‘痛’은 誤字로 의심된다.

2) 正當頂上; 『錢本』에는 이 네 자가 小字傍注로 되어 있다.

3) 動苦少腹痛; 『黃本』에는 ‘動苦少腹痛’으로 되어 있다.

4) 遺失溺; 『宛本』·『廣本』·『錢本』에는 모두 ‘遺失溺’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따른다.

5) 苦腹中有氣如指; 『繆本』에는 ‘苦腹中有疾如指’로 되어 있다.

6) 任脈也; 『繆本』·『朱本』·『張本』에는 모두 ‘帶脈也’로 되어 있다.

### 【註釋】

(1) 直上直下(직상직하); ‘弦長’한 脈狀이다.<sup>28)</sup>

(2) 癩病(전병); 癩癩. 精神異常이 생긴 병증으로, 우울하고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며 웃거나 울기도 하고 때로 노래부르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또한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큰소리로 외치며 물불을 가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며 불안해하고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3) 風癩疾(풍간질); 평소 몸이 허약하고 熱이 쌓여 있는 데다 風邪의 침입을 받거나, 혹은 肝經에 열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癩症을 가리킨다.

(4) 中央(중앙); 寸關尺 가운데 關部를 가리킨다.

(5) 頂上(정상); 頭頂에 있는 顛會穴에서 小兒의 驚癩을 치료하므로 이 穴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9)</sup>

28) 朴 旻; 國譯奇經八脈考, 大星文化社, 서울, 1992, p.202

(6) 圓(원); ‘壯’과 같다. 옛날에는 한 개의 艾炷을 一丸이라고 하고, 한 개의 艾炷를 뜨는 것을 一壯이라고 하였다.<sup>30)</sup>

(7) 寒疝(한산); 內臟이 虛寒한 데다 風寒邪를 감촉되어 극심함 腹痛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8) 徑; 疾也, 빠를 경

(9) 癭疝(가산); 疝瘕, 蟲. 小腹部에 열이 나면서 아프고 요도에서 백색의 점액이 흘러나오는 증상.

(10) 橫寸口邊(횡촌구변); 寸口 가장자리에 橫으로 걸쳐 있는 脈.<sup>31)</sup>

(11) 丸丸(환환); 구슬과 같이 동글동글한 맥상<sup>32)</sup>.

(12) 指(지); 支·枝와 같다.

(13) 橫骨(횡골); 恥骨.

(14) 臍下三寸(제하삼촌); 關元穴을 말한다.

### 【國譯】

尺寸이 모두 浮하고 直上直下하면 이는 督脈에 병이 있는 것이니, 腰背가 強痛하여 구부렸다 펴지 못하고, 어른은 癩癩을 앓고 아이는 風癩을 앓는다.

脈이 올 때 關部가 浮하고 直上直下로 박동하는 것은 督脈에 병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 脈이 박동하면 腰·背·膝이 차갑고 어른은 癩疾을 앓으며 소아는 癩疾을 앓는다. 정수리에 뜸 3壯을 뜬다.

尺寸의 脈이 모두 牢하고 어떤 本에는 扞로 되어 있다. 直上直下하면 이는 衝脈에 병이 있는 것

29) 上揭書; p.189

30) “古時一個艾炷稱爲一丸, 灸一個艾炷稱爲一壯.”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62

31) 朴 旻; 國譯奇經八脈攷,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180

32) 上揭書; 面同

이니, 胸中에 寒疝이 있다.

脈이 올 때 關部가 緊實하고 빠르게 關에 이르는 것은 衝脈에 병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 脈이 박동하면 少腹이 아프고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며 癥瘕·不妊·大小便不禁·脇下의 脹滿煩悶이 생긴다.

寸口 가장자리에 橫을 걸쳐 있는 脈이 동글동글한 것은 任脈에 병이 있는 것이니, 腹中에 막대기가 있는 것 같은 기운이 있어서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고 굽혔다 폈다하지 못하며 몸이 오그라든다.

脈이 올 때 緊細實長한 脈이 關에 이르는 것은 任脈에 병이 있는 것이니, 少腹에서 臍下를 감싸고 橫骨까지 당기며 陰部가 끊어질 듯 아프다. 臍下 3寸을 刺鍼한다.

## IV. 結 論

### 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

1. 本篇에서 '陽'은 浮部位를, '陰'은 沈部位를 말하고, '絕'은 脈이 단절되어 감응되지 않는 것을, '實'은 脈이 견실하고 힘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本篇에서 浮나 沈部位에서 脈이 단절되었을 때는 그 해당 臟腑와 서로 表裏가 되는 臟腑의 經絡을 선택해서 刺針하고, 脈이 實할 때는 그 해당 臟腑에 직접 刺針한다.
3. 第1章에서 心病에 心經을 刺鍼하지 않고 心包經을 刺鍼하는 것은 『內經』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는 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4. 第6章에 나오는 '子戶'는 『難經·第十八難』의 右腎 즉 命門에 해당한다.
5. 1章과 4章에서 '左手關前寸口'와 '右手關前寸

口', 3章과 6章에서 '左手關後尺中'과 '右手關後尺中'이라 한 것은 診脈할 때 掌後 高骨부위의 關을 기준으로 하여 寸과 尺을 배열하기 때문이다.

### 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1. 第1章의 心實과 心虛 條文에 '手厥陰經也'로 되어 있는 것은 '手少陰經也'로 고쳐야 한다.
2. 第1章의 小腸實 條文 중 底本の '病苦身熱, 熱來去, 汗出而煩, 心中滿'은 病理上 『千金』의 '病苦身熱來去, 汗不出而心中煩滿'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第3章에서 腎實의 條文이 두 개인데 이 중 뒷 條文인 "左手尺中神門以後脉 陰實者 足少陰經也 病苦舌燥 咽腫 心煩 噎乾 胸脇時痛 喘欬汗出 小腹脹滿 腰背彊急 體重骨熱 小便赤黃 好怒好忘 足下熱疼 四肢黑 耳聾"은 원래 正文이 아닌 註였던 것이 誤記되어 들어간 것이다.
4. 本篇에서 左手寸口를 人迎으로, 右手寸口를 氣口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素問』에 人迎은 結喉의 옆에 있는 頸動脈을, 氣口는 양손의 橈骨動脈을 가리킨다.

### 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1. 寸·關·尺에 각각 遲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寸部에만 遲脈이 나올 수는 없다. 이는 寸·關·尺에 모두 一息에 三至로 박동하나 寸部만이 무력할 때 진짜 遲脈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數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寸部에만 數脈이 나타날 수 없다. 이는 寸·

關·尺에 모두 一息에 六至로 박동하나 寸部만이 有力할 때 진짜 數脈이라는 의미이다.

### 平奇經八脈病第四

1. 第4章의 條文 중 '診得帶脉左右繞臍腹腰痛衝陰股也'와 第5章의 條文 중 '診得陽蹻病拘急陰蹻病緩'은 불안정한 문장으로 缺文이 있는 것 같다.

### 參考文獻

1. 何大任 校 ;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2. 福州市人民醫院 ;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沈炎南 主編 ;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4. 陣欽銘 ; 脈經新解,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6.
5. 李家庚 等 ; 脈經精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6. 蔣力生 校注 ; 脈經,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7. 張琨 等校 ; 脈經,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8. 吳承玉 等注 ; 脈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9. 王叔和 ; 王叔和脈經, 文光圖書有限公司.
10. 陣夢電 等編 ; 王叔和脈經, 大成文化社 影印, 서울, 1986.
11. 王叔和 ; 脈經, 大學書局, 臺南.
12. 劉更生 等點校 ; 千金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6.
13. 陵耀星 主編 ;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

京, 1991.

14. 滑 壽 ; 難經本義, 集文書局, 臺北, 1982.
15. 朴 炅 ; 診斷學權輿, 大星醫學社, 서울, 2000.
16. 朴 炅 ; 國譯奇經八脈考, 大星文化社, 서울, 1992.
17. 朴 炅 ; 國譯脈學輯要·脈語, 大成文化社, 서울, 1997.
18. 羅慶燦 ; 王叔和『脈經』의 文獻的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19. 成百萬 ;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20. 李 槿 ; 編註醫學入門,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9.

### 參考辭典

1. 商務印書館編輯部 ;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官, 香港, 1987.
2. 張三植 ; 漢韓大辭典, 教育出版公社, 서울, 1997.
3. 한상하 ; 漢文大辭典, 京人文化社, 서울, 1981.
4. 金赫濟 等 ; 漢韓明文大玉篇, 明文堂, 서울, 1992.
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9.
6. 謝 觀 ; 中國醫學大辭典, 麗江出版社, 서울, 2001.
7. 李熙昇 ;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2.
8.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0.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동의학사전, 까치글방, 서울, 1997.
10. 江克明·包明蕙 ; 簡明方劑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9.